



카메룬 선교 편지 50 호 (FROM DOUALA CAMEROUN)

강창석 이미숙 선교사

2024 3 월 20 일

Email : jabez3927@gmail.com

“그가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 23:10)

(센터 교회이야기 01)

하나. 도파시 교회 세례식 (침례식)

3 월 3 일 주일예배를 마치고 15 명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세례식이 각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를 통해 자란 아이들이 육체와 믿음이 성장한 모습으로 부모의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격을 지닌 거룩한 주님의 몸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공동체의 몸안에 가입되는 시간이기에 특별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웬지 아이들이 더욱 빨리 자라는 느낌입니다. 이제 학생부로 청년부로 자신의 중요한 자리를 지켜줌으로 교회에서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일과 허드렛일들까지 척척 감당해 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기 까지 합니다. 세례식은 온교회 가족 모두의 축제입니다. 세례자들이 모두 조금씩 회비를 모으고 여전도회 뱅시안*vincien 집사가 찬조해 180 명이 먹을 수 있는 빵과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이곳 카메룬에서의 세례식은 색다른 예식과 믿음의 큰 축제입니다. 세례받는 그들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흰옷을 입고 세례를 받는데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은 수십키로를 마다않고 찾아와서 축하합니다.

중앙아프리카 소녀 에보디의 부모는 특별히 에보디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 오고 믿지 않는 가족으로 아무도 없는 청년에게는 교회안의 믿음의 부모를 연결하여 믿음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둘 . 센터 교회이야기 02 (세계 여성의 날)

3 월 첫주 한주간 동안 카메룬은 세계 여성의 주간을 삼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3 월 8 일은 카메룬 여성들은 하루만큼은 모두 일을 쉬고 정부의 행사를 참여하거나 기관별로 축제를 합니다. 이곳 사회적 정신지주는 모두 남성중심입니다. 남성위주의 권위적 사회에서 집안일, 자녀돌보는 일은 물론 직장생활등 생업까지 과중한 일들에 여인들은 여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군인이나 전사가 되어버린지 오래 입니다. 억세고 거칠고 통명스러운 여인들이 진짜 여성으로 대우받고 존중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날 하루만큼은 휴일로 보내는 날이 바로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들은 그날만큼 자신을 위해 옷을 사고 머리를 꾸미며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하루를 공주처럼 되고 싶어하고 남편들에게 더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도파시 교회의 여성들은 여성의 날 하루로 만족할 수 없어 여성의 날을 여성주간으로 정해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신들이 여성임을 기억하고 주장하고 누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곳 여성들은 의상과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영기업인 cicam에서는 여성의 날 천을 만들어내고 그 옷감으로 단체복을 맞춰입으며 1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내려놓고 다 잊은채로 서로가 존재감을 깊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은 늘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하던 엄마들의 책임감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해 음식을 하고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만족감을 누립니다. 마당에서는 여성들만 팀을 짜서 축구대회와 미니운동회를 하고 한 가지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프로그램은 짜서 여성 재정자립운동을 목적으로 참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매년 자본이 없는 여성들이 작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비누, 락스, 식초만들기, 작은 약세사리 만들기, 오븐없이 케익 만들기, 음료수를 좋아하는 카메룬에서 각종 천연 재료등을 활용한 주스 만들기, 여성 패션가발을 만들고 활용하는법, 손, 발 마사지, 옷감 염색하기등 매년 다른 여러가지를 실행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 여성의 날 주제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이미숙 선교사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의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실제적 도움을 주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 보라고 격려 하였습니다. 특별히 2가정을 선발해 여성의 작은 부스를 만들어 가정에서 물건을 만들어 자립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발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아비가엘(abigail)에게 가발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각종 세제류를 만드는 기술을 배운 아녜스(Agnes)에게 원재료를 구입할 돈을 주어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에서 작은 자립을 이루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금요일 축제일은 연극과 춤, 시낭송과 성경암송등 공연을 하고 주님께 초청하는 시간을 통해 믿지 않았던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셋. 센터교회 이야기 03 (도파시 청년 전도단)
카메룬 성도들의 강점은 보통 찬양과 춤입니다. 워낙 뛰어난 음악성과 리듬감으로 카메룬 성도들은 어디서나 찬양을 부르고 춤을 참 잘 춥니다. 그런데 요즘 도파시 교회 청년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 전도의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들이 연합으로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 교회 온 지 1-2주 된 새신자 성도들을 제외하면 모두 전도나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 합니다. 2-3명씩 팀을 짜 전도하러 나가 담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질문에든 응대를 하다보면 다들 전도하러 나갔다가 자신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노방에서 복음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질문을 통해 이미 해결 받은 자신의 영적 문제와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 뜨겁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도 마음먹으면 언제나 전도할수 있는 일꾼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1월 과 2월] 지난사역정리 :

- 신년금식대성회 (1월 2-4 일) 3일간의 금식은 전교인에게 금식에 대한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더욱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룬에서 이슬람들의 금식성회인 라마단은 익숙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기에 교우들은 기대감반, 두려움반으로 금식성회에 참여했으나 3일 내내 풍성한 말씀과 기도로 약 70여명 교우들이 잘 마쳤습니다.

- - 새일꾼들 임명 (사역팀장과 기관 회장단을 새롭게 임명하였습니다.) 1월 21일
- - 아내가 수년간 떨어져 있던 아들 성찬이를 만났습니다. (1월 16-31)
- - 2월 4일 (주일예배후 오이코스 전도대회 조직) - 2월 11일 (vcp 교회개척 팀 개원- 10여명참여) - 2월 18일 (두알라 지역 리토랄 12개 지교회 ; 집사 장로 훈련)
- - 2월 (헌아식 부모교육) (여성의 날 행사)

[기도제목]

1.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말씀선포시 성령의 기름부음과 지혜, 충명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2. 고마(NGOMA-PK19)교회 건축이 4월중 마무리되어 성전입당을 할수 있도록
3. 12개 두알라교회들이 다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장할수있도록
4. 목회자 세미나, VCP(개척운동) , 여성복음 전도 강사훈련(EV5) 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 지도록 열매들이 생겨 지도록 기도합니다.
5. 우물사역과 전도가 이루어 지고 재정자립 정책들이 세워지도록
6. 베통베 프로젝트(9천평의 땅) -설계도 와 기초작업이 시작되고 (학교,기숙사,기도원, 수련회장) 등이 세워지는데 후원자들이 생겨지고 연결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